

두나무 “글로벌 거래 플랫폼으로 도약”

검증된 업비트 NFT 거래로 신뢰성 ↑
하이브와 글로벌 진출 합작사 추진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도 공개
화상 채팅 기능 더해 확장성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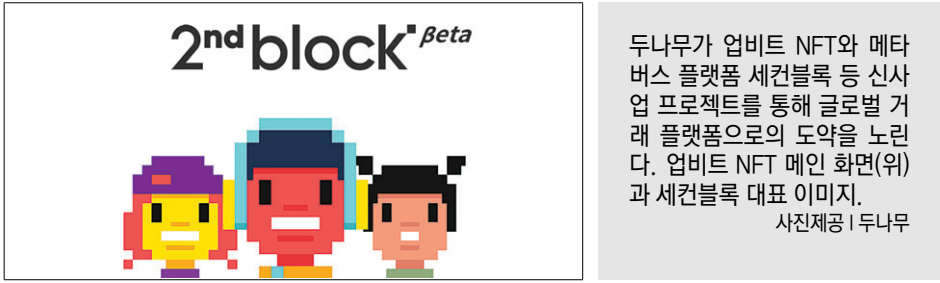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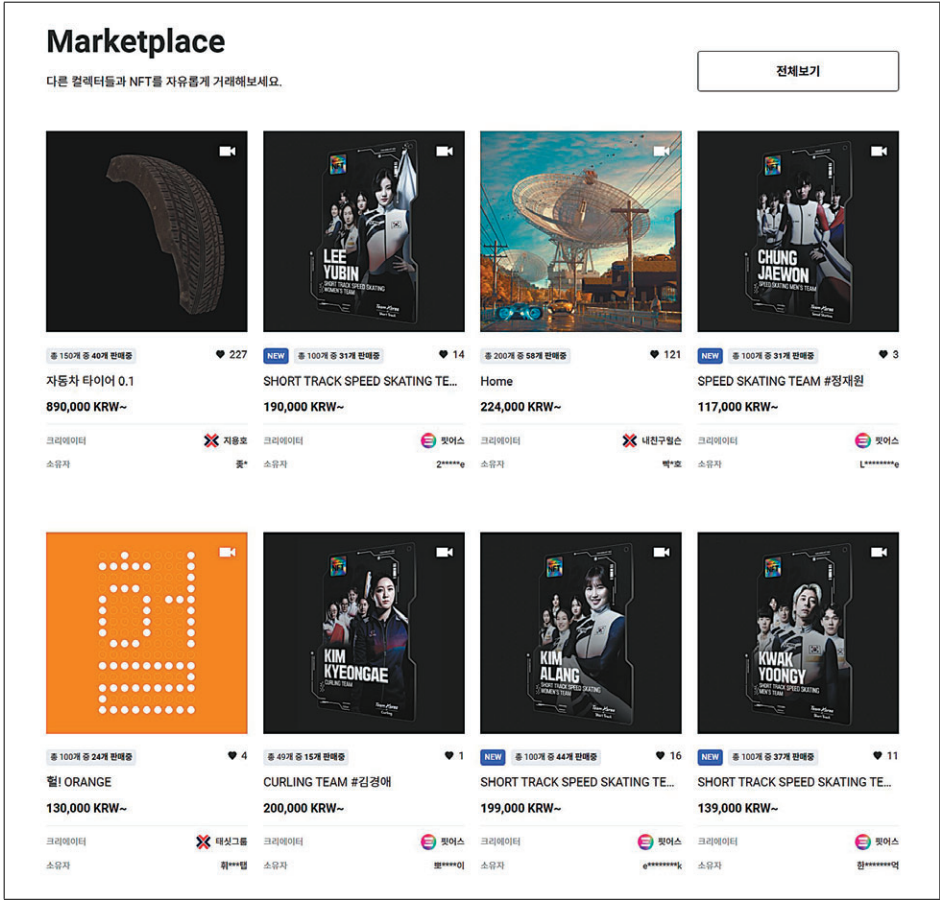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필두로 증권플러스,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을 운영 중인 두나무가 최근 업비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와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을 공개하며, 신사업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했다. 이를 미래 청사진의 주축으로 삼아 새로운 기회 발굴, 지속적인 성장 모멘트 확보, 다양한 사업적 시너지를 노려 글로벌 거래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검증된 NFT 거래로 신뢰성 추구

업비트 NFT는 업비트 회원과 창작자를 연결해 창조적 잠재력을 디지털로 실현하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거래 지원 검토 과정을 거쳐 검증된 NFT만 거래해 신뢰성을 추구하는 게 핵심이다. 비트코인과 원화로 거래되며, 드롭스(Drops)와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로 구성했다.

드롭스에서는 창작자들이 발행한 NFT를 고정가 판매 방식으로 경매한다. 1월 말 기준 업비트 NFT 드롭스에서 판매된 작품은 총 49개로 이중 35개가 일러스트 작품으로 나타났다. 가장 고가에 낙찰된 작품은 장팔 작가의 '미라지 캣 3'로 3.5BTC에 낙찰되며 당시 시세 약 2억5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했다. 향후 스포츠, 방송, 패션, 게임 등 다양한 영역의 NFT를 선보일 예정이다.

업비트 NFT 마켓플레이스는 드롭스



에서 낙찰받은 NFT 및 업비트의 NFT 에어드롭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NFT를 거래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 일부는 창작자에게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한다. 향후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후원 등 창작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1월 말 기준 126개의 NFT가 거래됐으며, 가장 고가에 판매된 NFT는 매드몬스터의 '에픽 of 에픽'을 위한

매드몬스터'로 1억 원에 판매됐다.

회사 측은 “업비트 NFT의 성과가 NF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크리에이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서울옥션블루, 아이에스에이 컴퍼니, JYP 등과 NFT 관련 사업협력을 맺고 관련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하이브와 NFT 합작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예

정”이라고 했다.

●화상 채팅 기능 결합한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2ndblock)은 국내 최초 화상 채팅 기능을 결합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디지털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두나무가 선보이는 또 하나의 혁신 서비스로 불린다.

화상 채팅 기능을 접목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낮추고 현실에서의 확장성을 극대화했다. 또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간 내 최대 1000여 명까지 접속할 수 있다.

작게는 사적 모임, 대학 강의나 기업 회의에서부터 크게는 전시회,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콘셉트와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개설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보다 더 정교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치 극대화, 다변화, 글로벌화, 지속가능성이 사업 방향의 핵심가치”라며 “모든 디지털 자산의 거래 판로를 구축해 최상의 가치를 이끌어내고, 업비트 NFT와 세컨블록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또 “두나무가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가치 있는 대상의 거래’를 누구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술로 이어주는 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이라며 “이런 성공 방식을 다시금 적용해 블록체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 거래 대상을 확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이원덕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 “경영 안정성 제고 최고 책임자”



이원덕
우리금융 수석부사장

이원덕 우리금융 수석부사장이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내정됐다.

우리금융은 7일 오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와 이사회를 열고, 이 수석부사장을 단독 후보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공주사대부고,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 한일은행에 입행했다. 우리은행 전략기획팀, 경영기획그룹장을 지냈고 2020년부터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을 맡는 등 전략기획통으로 불린다.

자추위는 “이원덕 후보는 우리은행 미래금융단 상무, 경영기획그룹장을 역임하고, 지주사 수석부사장(사내이사)으로 그룹 내 주요 핵심업무 전략, 재무, 인수합병(M&A), 디지털, 자금 등을 담당하면서 그룹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플랫폼 경쟁력이 핵심 경쟁요소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룹 디지털혁신소위원회 의장으로서의 경험 등이 높이 평가됐다”며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과 노력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완전민영화 이후 분위기 쇄신 등 은행 조직의 활력과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최고의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종득 우리종합금융 대표, 이창재 우리자산신탁 대표, 고영배 우리펀드서비스 대표, 김경우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대표,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연임한다. 또 우리신용정보와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 후보에는 각 이종호 우리은행 집행부행장과 고정현 우리은행 집행부행장보가 새로 추천됐다.

정정욱 기자

삼성증권 “미국 주식 거래, 이젠 낮에 하세요”

전 종목 주간 거래 서비스 도입

삼성증권이 7일 미국 주식 전 종목 대상 주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거래는 정규시장(한국시간 기준 23시30분~6시)과 함께 프리마켓(18시~23시30분)과 애프터마켓(6시~7시) 시간에만 가능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삼성증권 고객은 기존 거래시간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미국 주식 전 종목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루의 거의 대부분인 20시간 30분 간 매매가 가능해진 셈이다.



삼성증권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 사진제공 | 삼성증권

이 서비스는 삼성증권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FINRA(미국 금융산업규

제국)로부터 오버나이트 세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승인받은 유일한 대체거래소인 ‘블루오션’과 독점 제휴를 맺으면서 가능해졌다. 또 투자자에게 미국주식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최대 마켓메이커인 ‘제인스트리트’를 비롯한 글로벌 톱 티어 마켓 메이커들이 유동성 공급자로 참여한다.

이 서비스로 인해 주로 야간에 거래를 해야 했던 국내 서학개미들의 투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간에 담당PB(프라이빗뱅크)와 상담해 투자할 수 있고, 국내 증시와 미국 선물지수 흐름

에 따른 맞춤형 거래가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삼성증권이 실시 중인 통합증거금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통합증거금 제도를 활용하면 투자자는 국내 및 중국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곧바로 미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주식 매도 자금을 통해 국내 주식을 살 수도 있다.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1달러만 미국 주식 주간거래를 해도 선착순 5만 명에게 커피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재훈 삼성증권 채널영업부장(부사장)은 “해외 투자 확대에도 각국의 물리적 시차는 투자자에게 걸림돌이었는데, 시차의 부담 없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의 혁신을 이룬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롯데카드, 엘포인트 적립 ‘롤라카드’ 출시



롯데카드가 롯데멤버스와 손잡고 ‘엘페이 바이 롤라카드’(사진)를 선보였다.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엘페이 이용 시 최적화된 엘포인트 적립 혜택을 담았다. 엘페이에서 결제 시 2%를, 그외 결제 시 모든 가맹점에서 1%를 엘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40만, 80만, 120만 원 이상 이용 시 각각 1만, 2만, 5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전월 이용금액이 40만 원 미만이어도 0.1%를 한도 없이 적립해 준다. 28일까지 전월 이용금액에 상관없이 엘페이 결제금액의 20%를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추가 적립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8일 (화) 음력: 1월 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생각대로 실행하라. 좋은 결과가 온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를 보게 되니 내일 행하라. 오늘은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 말라.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임장도 몇몇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전환기와 같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운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날 뜨지만 나중엔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손을 안 대도 될 것을 자꾸 건드린다.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소송사건은 오래 가겠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6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